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칼리오삐 순교자

부활 후 제6주일 / 소경 주일

성 니키포로스 주교교백자, 성 에라즈모스 사제순교자
제5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 2, 3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6, 16-34 / 255, 봉독서 73
- 복음경 : 요한 9, 1-38 / 102, B 24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칼리오삐 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6월 8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칼리오삐 순교자처럼 우리가 순교 성인들의 삶과 순교에 대해서 읽어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개의 다른 상반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한 면은 사탄적 교활함과 박해자들의 인간미 없는 잔혹함이고, 다른 한 면은 순교 성인들의 인내와 참을성입니다.

박해자들이 거칠어질수록 성인들의 순교

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요한묵시록 22:11)라는 말씀처럼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영적 위대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리는 항상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후 창조하신 신세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행하신 일들은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축복하시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진흙을 이겨 숨을 불어 넣으셨지만, 죽음을 죽음으로 멸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다.(요한 20:22) 이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행위를 하신 것이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모세 예언자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시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한 그의 얼굴이 빛나는 영광으로 싸여 있었기 때문에 아론과 백성들은 빛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대화해야 했다.(출애굽기 34:29~35) 또한 성막을 건립하고 하느님께 기도할 때에도 제사장이나 대사제 이외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는 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새 역사가 이루어졌다. 주님의 부활 전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으나 사도 토마는 시간과 한계를 초월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 볼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요한 20:27)

또한 성찬예배에서 영성체가 이루어진 후 성가대는 “우리가 참빛을 보았나이다.”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주

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았으며, 하느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 나라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도록 명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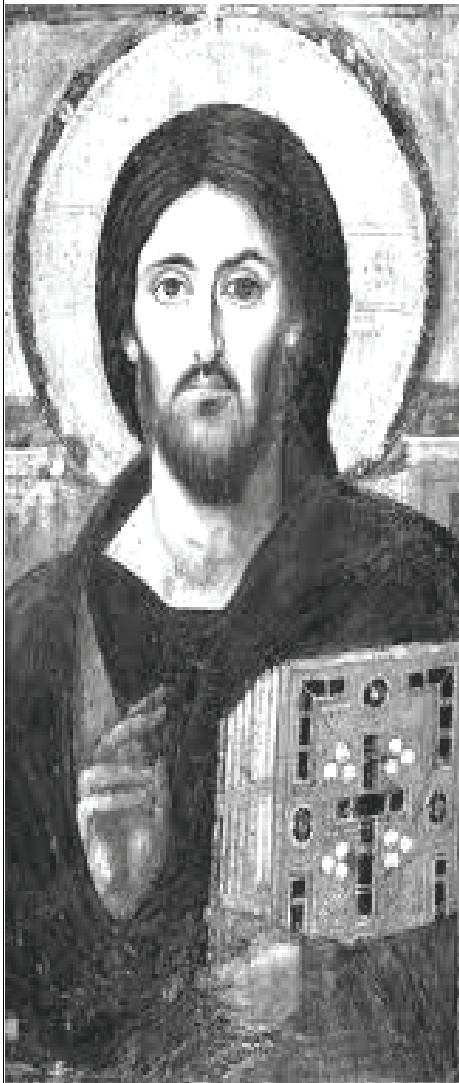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몸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 갈 수 있는 성전이 되고 성체성혈을 받아 모심으로써 주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믿음의 제자 베드로, 소망의 제자 야고보와 사랑의 제자 요한이 다 불 산에서 변모하신 주님의 빛나는 몸을 바라 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영광을 바라 볼 수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님의 평화를 이룩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많은 조상들이(마태오 4:16) 이전에 살아왔던 고통의 삶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새 역사를 창조하심으로써 시작되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인도된 것도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오 4:17)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형제의 고통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는 천상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지름길



한 어린 소년이 밤에 어두운 묘지로 들어 가려고 하였다. 그 묘지를 가로질러서 작은 길이 나있었으며, 그 길은 소년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길을 지나던 한 사람이 소년에게 물었다.

“얘야, 밤에 이처럼 어두운 묘지를 가로질러서 걸어가다니 무섭지 않니?”

“네 어르신, 묘지 저 끝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시나요? 그 불빛은 제 아버지 집 창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묘지는 그 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 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멀리 반짝이는 빛을 본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의 집 창에서 빛나는 불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의 인도를 받아 어두운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 우리 삶의 절망을 견어내고 고통을 덜어주는 빛이다.

이 빛은 ‘이 땅의 삶’이라는 여행이 끝날 때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확실히 약속해주는 빛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활절 종례일 밤 예배

오는 6월 5일(수) 부활절 종례일을 맞이하여 작년처럼 부활절 종례일 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6월 4일(화) 오후 7시에 시작하여 9시 30분경에 마칠 예정으로, 예배는 부활절 밤 예배와 같은 예배로 특히,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있을 것입니다.

■ 음식 축제

오는 6월 16일 오순절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불가리아, 미국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봄 야유회

오는 6월 6일(목) 현충일에 봄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 울산 대공원
- 시간 : 10시 30분
- 모이는 곳 : 울산 대공원 남문 앞
- 준비물 : 각자 도시락과 음료수, 돗자리

돌아가신 애국지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주신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예식

- 6월 5일(수) ▷ 부활절 종례일
- 6월 6일(목) ▷ 승천 축일
- ☞ 각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